



반도체 복합 검사 장비업체 **아드반테스트코리아(주)** 최신 공장 완공하고 세계 1위 핵심 기지로 도약

충남 천안에 있는 아드반테스트코리아(대표 한철희)는 일본 (주)아드반테스트의 한국 현지법인이다. 반도체 시험 장비 및 핵심 부품을 생산, 판매하고 기술을 서비스 하고 있다. 본사인 ㈜아드반테스트는 1954년 도쿄에서 창립해 2001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전 세계에 약 30여개의 자회사를 둔 글로벌기업이다. 반도체 업계에 공급되는 테스트 장비(테스터)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테스터는 반도체의 설계·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검출해내고 성능을 측정하는 복합 검사 장비다. 입력 전압은 설계대로인가, 출력에 따라 흐르는 전류는 설계대로인가, 입력에서 출력까지의 신호 전달 속도는 설계대로인가 등을 순식간에 테스트하는 기계다.

(주)아드반테스트는 500억원을 투자해 천안 제3산업단지 3만 9,605㎡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최신 설비를 갖춘 새 공장을 지난 5월 완공했다. 천안공장은 아드반테스트그룹의 세계 전략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공장이 될 예정이다.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핸들러,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프로브카드를 한국에서 생산해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해외 각사에 수출하고 있다. 홍인정 부장은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서 2조 5876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 및 4,686억원의 수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300명을 직접 채용하고 외주파견업체들이 2300명을 고용하는 등 총 7420명의 고용 효과도 예상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4일에는 충청남도도와 2015년까지 천안 제3산업단지에 일본에 있는 R&D센터를 이전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천안공장 위와 한철희 대표(오른쪽).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1986년 설립됐다. 종업원 160명이 2012년 기준으로 1089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일정 기간(1개월) 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추어 근로자가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무 시간제를 운영하는 등 복지 제도로 남부럽지 않다. 지난 5월10일 천안시 장학재단에 1억원을 기부하고 연 3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 사회와 함께 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더욱 성장이 예상되는 강소기업이다.